

2011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42

히브리서에서

(2)

위대한 대제사장

성경: 히 2:17-18, 4:14-16, 7:27, 8:1, 9:12, 14, 26, 28

- I.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니’—히 4:14.
- A.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1:5, 8, 2:6)과 일(1:3, 2:9-10, 14, 17)과 도달하신 것(6:20, 9:24, 2:9)에 있어서 위대하시다.
 - B.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8:2, 4:16.
 - C. 주님은 육체가 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를 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2:17-18, 4:14-15.
 - 1.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a.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그의 어깨와 가슴에 깊어졌다—출 28:9-12, 15-30.
 - b.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깨와 가슴 위에 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써 하늘들에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깊어지고 계신다—히 9:24.
 - 2. 그리스도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깊어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존재 안으로 공급하신다—8:2.
- II.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9:14), “많은 사람의 죄들을 깊어지시려고 한 번 드리지신 그리스도”(28 절), “그분은 자신을 드리시어 한 번만에 영원히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7:27).
- A. 주 예수님이 그분의 제사장 사역에서 첫번째로 하신 것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었다. 그분이 참 속죄 제물이시다—롬 8:3, 히 9:26.
 - 1.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는 유일한 속죄 제물이셨다. 그러한 속죄 제물로써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계 13:8.
 -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한 번만 영원히 드리셨다. 이것은 한 번만에 영원히 성취되었다—요 1:29, 히 7:27, 9:12, 26.
 - B. 대제사장으로써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셨다’(2:17). 이제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만족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진정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시다—롬 3:25.
 - C.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히 1:3.
 - 1. 구약에서 화해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동일한 제물을 반복해서 드렸고 결코 앉아 있을 수 없었다—10:11.

2.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셨고 한 번만에 영원히 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성취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영원토록 앉아 계신다—요 1:29, 히 1:3, 8:1.

III.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십니다”—4:15:

- A.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그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2:17). 여기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는 그분께서 사람이신 것과 일치하고, ‘신실하신’ 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일치한다.
- B.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신 분이므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시험받고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2:18, 4:15.
 1.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에 쉽게 동정하시고 신속하게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15 절.
 2.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분은 그것을 우리와 함께 느끼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참조 행 9:1-5, 롬 8:26.
 3. 그리스도는 우리의 느낌을 항상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지 그분도 그것을 느끼신다—히 4:15.
 - a.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을 동정하신다—딤후 4:22.
 - b. 그분은 우리와 하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동정 하신다—고전 6:17.
 - c.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있게 되며 우리의 약함을 항상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체험한다—빌 4:23, 딤후 4:22, 히 4:15.

IV.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8:1.

- A.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현재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써 지금 하늘들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과 은혜와 권위와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도록 떠받쳐 주고 계신다—4:14-16.
- B.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일의 구원이시며 순간 순간의 공급이 되신다—1:3, 10:21.
- C.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하늘 안으로 들어가게 곧 우리를 땅에 속한 바깥 마당에서 나와 하늘에 속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늘에 속한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분에 의해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창 28:12, 요 1:51, 히 4:16, 10:22.
 1. 이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하늘들에 있고 또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교회 안에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이다—엡 2:22, 히 2:12, 4:12, 16, 12:22-24.
 2. 땅을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요 1:51, 3:6, 4:24, 갈 6:18, 딤후 4:22.
 3. 하나님의 거처와 하늘에 속한 사다리에 의해 하늘들에 있는 지성소가 우리의 영과 연결되었다—엡 2:22, 요 1:51, 고전 6:17.
 4. 놀라우신 그리스도—우리의 위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들에 계시고 또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히 8:1, 딤후 4:22.